

왜 韓國의 酪農 肥育産業은 自主自立되어야 하나

—흔들리는 酪農基盤—

誠元牧場 康 誠 元

〈韓國酪農經營研究會〉

近者에 牛乳製品의 수입自由化論이 정부당국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어찌면 이미 그 정책의 대강이 內面的으로 정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農業生産品 전반에 관한 輸入規制 또는 自由化문제를 다루는 당국의 정책입안자나 政策決定權者들의 기본자세를 再定立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이 글을 쓴다. 필자는 理論的 소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政策立案 과정에 관여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인 고로 단지 젖소를 기르는 酪農人의 한 사람으로서의 극히 상식적인 農民의 느낌을 서술코자 한다.

最近 수년간 우리 畜産人의 귀에도 제법 심심치 않게 比較優位라는 용어가 들려 온다. 처음에는 매우 생소했지만 이제는 친근하고 실감나는 말이 되어 우리의 營農姿勢에도 적지 아니 생각하게 하는 要素가 되고 있다. 그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 世界를 한 울타리로 보고 能率爲主로 分業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같은 물건을 더 잘, 더 싸게 만드는 나라쪽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쪽으로 輸出 또는 輸入하게 하여 地球人 모두가 모든 물건을 가장 싼 값으로 쓰게 함을 그 最終目標로 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대할 사람이 있을리 없고 차라리 유토피아라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은 比較優位라는 용어가 풍기듯이 남보다 더 잘, 더 싸게 만들면 더 많이 팔 수 있다는데서 부터 發想된 것 같으니 問題가 되는 것이리라. 그것은 모든 나라가 서로 區別되어 있고 또한 이해가 늘 相反

된다는 데에서 宿命的으로 競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重要한 物資나 生産品에 가끔 安保的 次元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전술한 바대로 國家間的 관계가 언제나 陰陽으로 競爭狀態라면 安保에 관계없는 물건은 없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모든 나라는 모든 物品에 比較優位를 확보하고자 必死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可能한 것은 아니니 貿易收支를 해치지 않는 限界內에서 選擇的으로 主力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牛乳製品이 輸入自由化가 된다면 우리 정부는 결국 酪農을 比較優位를 확보하도록 이끌어가는 쪽이 아닌 즉 버리는 쪽으로 政策決定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輸入自由化를 택했다 해서 政策決定權者들이 낙농을 아주 버릴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物品에 비교우위 이론을 적용하여 輸入을 開放하는 경우 그 物品을 生産하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하여 必死의인 노력으로 技術을 革新하고 經營을 合理化하여 品質을 향상하고 生産原價를 節減함으로써 몇몇하게 比較優位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말살 보다는 발전과 國益을 위하여 비교우위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酪農製品의 수입자유화정책은 酪農을 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 것은 政府의 意圖가 分明히 버리는

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낙농의 特殊性 때문에 結果적으로 버리는 쪽이 된다는 뜻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政府가 酪農製品의 輸入自由化를 거론함에 있어 비교우위가 없다는 데에 論旨를 두고 있다고 한다. 뒤집어 말하면 농민 스스로가 比較優位를 확보하거나 불연이면 그만두라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酪農이야말로 장차 비교 우위를 이룩할 可能性이 가장 큰 農業分野라고 믿고 있으며 다만 현재 比較優位가 없는 것이 分明할 뿐만 아니라 단시일내에는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가슴아파 하는 것이다. 그러면 酪農이 오늘날 비교우위가 없게 된 原因을 먼저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酪農先進國들은 대체로 백년이상 수백년동안 目標變更없이 끈질기게 풀밭을 한평 한평 일궈고 돌맹이 하나 하나를 매를 이어가며 쪼아 냈다는 事實.
2. 酪農先進國들은 牧野地를 이룬다는 것이 國力을 傾注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酪農政策의 대강만은 변경함이 없이 積極적으로 施行했다는 事實.
3. 우리나라 酪農人들은 乳牛, 農機具, 牧草種子등을 구입함에 있어 酪農先進國의 낙농인들이 구입하는 경우보다 2배 또는 3배의 代金을 치루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原價上昇要因을 안고 있다는 事實.
4. 우리는 草地를 造成하기 시작한 지 日淺하여 그 넓이에 있어 대수롭지 않으며 그나마 반이상이 황폐화하였고 살아 있는 것도 높은 生産性을 維持할 만큼 地力을 높이지도 못하고 손때를 먹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젖소는 풀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
5. 酪農先進國들은 빠짐없이 金融政策과 補助政策에 있어 획기적이었음이 눈에 띈다. 一般 金利가 10%내의일 때 畜産에서 3~4.

%의 低利로 그것도 10~20년에 공하는 長期融資가 많았고 補助政策 또한 과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經濟政策이 부득이하기도 하였겠으나 이점에 있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6. 酪農先進國에서는 乳牛個體의 年間生産量이 홀스타인種의 경우 이미 6,000kg을 돌파 7,000kg을 넘나들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乳牛改良事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유우개량사업은 家畜改良事業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체로 種牝牛의 혹사로 精液需要의 총수를 간신히 메꾸는 것이 고작인 실정인 듯하다. 그러니 막대한 수의 近親交配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改良은 고사하고 改惡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事實.

위는 우리 飼育家들의 느낌을 대충 추려 본 것이지만 이러한 여건하에서야 어느나라의 어떤 사람이라도 比較優位를 확보할 방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多幸한 것은 위에 말한 것들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점이다.

1. 우리나라는 수천년을 農耕民族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政府가 酪農의 比較優位 확보라고 하는 遠大한 目標을 세워 놓고 꾸준히 민다면 우리 농민은 끈질김에 있어 어느나라 사람 보다도 成功的일 수 있을 것이다.
2. 草地造成에 관하여는 表面上으로는 政府가 우리 畜産人보다 더 정열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 또한 그러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
3. 乳牛, 農機具, 牧草種子등을 國際水準보다 너무 많이 비싸지는 않도록 政府가 稅制나 補助政策을 적절히 써줄 수 있을 것이다.
4. 牧草地를 整備하고 地力을 높여 그 生産性을 極大化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畜産人이 할 일이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5. 政府는 金融政策과 補助政策面에서 낙농선진국을 따라 가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애써 줄 수 있을 것이다.
6. 乳牛의 生産性을 높이기 위한 改良事業은

이를 과감하게 民間에 開放할 것이며 牛籍 記錄과 登錄事業을 적극 教育 指導하되 꾸준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비교우위 확보를 가로막고 있는 諸 要素는 거의가 해결 가능한 것이지만 이에는 政府와 酪農人의 一致 團結된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酪農의 比較優位 確保라는 目標의 設定과 성급하지 않고 끊임없이 긴 세월을 싸워나가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이제 다시 酪農製品의 輸入自由化 문제를 생각해 본다.

政府는 해마다 食糧自給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말 안되는 말인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진실로 食糧自給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意志가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모든 農業生産品을 꼭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시켜 오지 않았던가. 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輸入政策을 이해하여 왔던 것은 오로지 食糧自給을 향한 과정에서도 사람은 굶고 살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던가. 정부가 農業部門에 대하여도 일응 比較優位를 검토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몇해전에 당시 국무총리가 관훈클럽에서 가진 연설중에 우리나라 農土는 國民 1人當 몇평밖에 되지 않으니 食糧의 自給은 물론 比較優位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暗黙裡에 食糧의 수입자유화를 주장하여 전 國民을 놀라게 함과 동시에 美國 곡물업자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바 있었는데 만일 이러한 극단적인 比較優位政策이 食糧政策에 원용된다면 酪農製品의 수입자유화 다음에는 어떤 農產品이 또 수입자유화 대상이 될 것인가. 필자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農産物은 거의가 比較優位는 없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牛乳輸入自由化 이후 국제시세가 국내 生産價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쌀의 수입자유화는 거론되지 않을런지.

수개월전에 현직 농수산부장관이 畜産振興 10 年計劃을 발표하여 장차는 우리 국민도 牛乳나 쇠고기를 충분히 먹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輸入해다가 먹이는 것으로 計劃變更을 할 것인지. 만일 정말로 비교우위 이론을 食糧에까지 적용하려 했던 그때의 국무총리의 생각이 망령처럼 아직도 살아 남아서 牛乳輸入政策이 거론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왜 보온밥통을 마음대로 수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왜 自動車는 수입자유화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왜 모든 機械는 自由로 輸入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스테레오는? 비디오는?

필자는 이제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1. 韓國의 與件下에서 酪農은 比較優位를 확보할 수 있다.

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山地는 훌륭한 基本資源이 된다.

나. 한국인의 두뇌와 재간으로 酪農技術의 習得과 發展은 신속히 이룩될 수 있다.

다. 牧野地造成은 정부의 不退戰의 결의와 酪農人의 정열로서 서서히 그리고 착실히 이룩될 수 있다.

2. 酪農의 比較優位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가. 낙농 선진국들은 酪農基盤을 확립 하는데 1世紀 내지 3世紀나 걸렸으나 우리는 훨씬 빨리 酪農基盤을 造成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20~30년 걸리지 않겠는가.

나. 故로 政府나 酪農人이나 20~30년 끈질기게 基盤造成에 헌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낙농인이 所期의 目標을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支援을 해야 할 것이다.

3. 食糧이야말로 安保의 次元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政策課題가 아니겠는가.

가. 자동차 수입문제를 거론하면 언필칭 安保次元이라는 용어를 꺼낸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食糧이 자동차보다 重要하지 않다는 생각에 同意

할 수 없다.

나. 食糧은 生存한다고 하는 事實을 댓가로 남기고 莫大한 代價를 요구한다. 食糧을 自給하지 못할 때 輸入함으로써 필요한 外貨는 이 나라의 安保를 뒤흔드는 막대한 크기일 수도 있다.

4. 酪農과 관련된 비교적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가. 政府의 振興政策을 믿고 상당한 시설투자 를 한 수만세대의 낙농가들의 倒産과 失業을 간단히 볼 수 있겠는가.

나. 牛乳나 고기를 많이 먹는 民族과 그렇지 못한 民族과의 사이에 생기는 격차는 엄청 청나다는 것이 立證된지 오래다. 國民의 體力이 저하되어도 比較優位理論이 보충 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酪農이 生産하는 堆肥는 地力을 增進시키 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政府나 酪農人 우리 모두는 酪農製品의 輸入 自由化 論爭은 그만하고 韓國酪農의 比較優位 를 확보하기 위하여 總 進軍하자.

高能力乳牛와 高泌乳牛

우리는 高能力乳牛가 即 高泌乳牛라고 混同하 기 쉽다. 實際에 있어서 이 두가지의 用語는 完 全히 다른 뜻을 갖는다.

美國 酪農家나 科學者들은 高能力牛의 定義를 遺傳的 내지 育種學的으로 推定한 潛在的 產乳 能力(乳脂率 包含)이 一般 乳牛 보다 높은 乳牛 個體 및 높은 水準의 產乳能力의 實績을 가진 乳牛個體를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遺傳力의 推 定值나 育種學的의 側面에서 能力의 判斷을 내리 는데는 그 個體의 血統이 爲先 明確하여야 하며 系統이 確立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種畜 生 産 農家나 育種農家에서 기르고 있는 乳牛群內 에서 種畜生産 基本畜中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一般的으로 美國에서 高能力牛를 High Per- former 라고 부르고 있으며 年間 產乳量이 40,000LBS (18,000kg) 以上 程度의 乳牛 個體 를 指稱하는 것이 普通이다.

高泌乳牛란 美國에서 High Produce 라고 부 르고 있으며 年間 產乳量이 7,000kg以上이고 最 高泌乳時의 日乳量이 40kg以上의 乳牛를 말하 고 있다. 一般的으로 美國內 搾乳專業農家の 乳

牛群에는 이와같은 소들이 대부분이며 年間 10,000kg~14,000kg 以上의 젖을 搾乳하고 있는 酪農家를 酪農地帶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美國의 酪農界 實情이다.

그러나 高泌乳牛는 그 血統이 確固한 高價의 牛가 아니며 經濟的으로 값이 싼 것을 入手 또 는 自家 生産한 乳牛를 飼養하고 있는 것이 普 通이다. 그렇다고 高泌乳牛에 血統이 確固한血 統登錄牛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一般的으로 美國의 酪農業이 種畜生産農家, 搾乳專業農家, 育成牛飼育農家の 세가지로 分業化되어 있어 이들 高泌乳牛群의 個體가 遺傳學的의 改良上 所謂 말하는 高能力牛라고 生覺하고 있지 않다.

高能力牛이거나 高泌乳牛를 莫論하고 젖이 많 이나고 안나는 것은 飼養技術의 科學的 合理性 에 基因되므로 飼養管理가 不適合할때는 遺傳 的으로 推定할 潛在的 產乳能力이 優秀한 高能 力牛라 할지라도 相應한能力을 發揮하지 못한 다는 것을 酪農家들은 銘心하여야 한다.

高能力乳牛와 高泌乳牛라고 하는 말은 決코 同一用語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美國의 最高 產乳記錄牛는 年間 產乳量이 24,000kg이다.